

광주 FC '승리의 추억' 상주 잘 만났다



23일 K리그 클래식 7R 원정
역대 전적 9승1무5패 '자신감'
5경기 무승 분위기 반전 노력

프로축구 광주FC가 상주 원정에서 감세를 잇는다. 광주 FC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상주시 민운동장에서 상주 상무와 2017 K리그 클래식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1승 3무 2패(승점 6)로 9위에 올라 있다. 광주는 5경기 연속 승리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포항, 서울, 제주, 울산 등 상위팀과의 경기에서 선전했던 만큼 상주전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주는 광주에 반가운 상대다. 광주는 역대 전적에서 9승 1무 5패를 기록하며 상주를 제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전 전승(6득점 무실점)으로 상주를 압도했다. 상주전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 지난 16일 수원 삼성 원정에 다녀온 광주는 FA컵을 통해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안방에서 열린 FA컵 서울 연세대

의 32강전에서 광주는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4-2 역전승을 이뤘다. 이날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결장 또는 교체 출전한 가운데 나상호, 이종서, 김시우 등 신예 선수들이 자리 경쟁에 불을 붙였고, 부상으로 쉬어갔던 선수들은 컨디션 점검을 받았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은 비축하고 대체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남기일 감독의 전술과 선수기용 옵션이 늘었다. 승리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이번 상주 원정에서 조주영의 활약이 기대된다. 조주영은 올 시즌 FC 서울, 제주 유나이티드 등 강호들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광

주의 차세대 해골사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전 득점 이후 2경기에서 침묵하고 있지만 가볍고 폭넓은 움직임이 보여주면서 성장세다. 지난해 상주전에서 골맛을 본 기억도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골문을 조준할 수 있다. 상주는 올 시즌 현재 2승 2무 2패 승점 8점으로 6위에 있다.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 지난 시즌 새롭게 갖춘 공격축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실점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 불안이 상주의 약점이다. 수비 안정에 성공한 광주가 초반 득점에 성공한다면 상주전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적으로 만나게 되는 광주선수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골키퍼 제종현, 수비수 정준연, 미드필더 여름 등이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광주의 골잡이로 활약했던 김호남도 친정의 골대를 겨냥하게 된다. 남기일 감독은 "아직 1라운드를 다 돌지 않았기에 광주만의 축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의 색깔을 내야하고 꾸준한 경기력이 필요하다"며 상주전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강조했다. 광주가 상주전 강세를 이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후반 45분 대추적전...광주FC, FA컵 16강

연장서 연세대 4-2 놀리

광주 FC가 '형남'의 노련함으로 FA컵 16강행을 확정지었다. 광주 FC가 지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연세대와 2017 KEB하나은행 FA컵 32강 경기에서 4-2 역전승을 거뒀다. '10분의 기적'으로 이른 대역전극. 광주는 패기 넘치는 '아우'들과의 승부에서 경기를 주도했지만, 총총하게 짠 연세대의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고전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나상호와 새로운 피이중

서가 처음 선발로 나서 공격 전면에 섰지만 아쉽게 마지막 수비를 넘지 못했다. 결국 후반 8분 주장 완장을 차고 연세대를 지휘하던 두현석이 벼락 슈팅으로 광주의 골대를 갈랐다. 그리고 경기 내내 파워 넘치는 움직임으로 눈길을 끌었던 연세대 이근호가 후반 34분 다시 한번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번즈, 주현우, 조성준 등까지 투입하면서 전세 뒤집기에 나섰다. 수비 공세에 나선 연세대의 벽에 막혔다.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45분, 광주 임대준이 역

전극의 서막을 알리는 추격골을 터트렸다. 불과 2분도 안 돼 이번에는 홍준호가 골행진에 동참했다. 남은 추가시간 이종서가 때서운 헤딩슈팅을 날리며 경기 종료를 알리는 것 같았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껴갔다. 결국 연장전에 돌입한 광주가 뒤늦게 시원한 공세에 나섰다. 연장전 시작 2분 만에 정호민이 대표팀 슈팅을 날리며 역전극을 예고했다. 그리고 전반 4분 전지현은 어깨 탈골 부상으로 긴 침묵을 해왔던 김정현이 역전골을 터트렸고, 이어 5분에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종서의 머리가 마침내 골대를 가르면서 4-2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지난 15일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라인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전반 19분 팀의 두번째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FA컵 4강전 토트넘-첼시

손흥민 골 넣으면 새 역사

유럽 한 시즌 최다골 19골·리그 최다골 12골
한국인 EPL 통산 최다득점 27골 갈아치운다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리그 최강 첼시와의 맞대결에서 역사적인 시즌 20호골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23일 오전 1시 1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2016-2017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강전 첼시와의 경기를 치른다. 손흥민은 15일 본머스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서던 전반 19분 추가골을 터트리며 정규리그 12골을 포함해 FA컵 6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 등 올 시즌 19호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골 맛을 보면 한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의 한국인 선수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골(19골) 기록은 물론 '영원한 캡틴' 박지성의 한국인 EPL 통산 최다득점(8시즌·27골), 자신의 유럽 무대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2012-2013시즌 12골) 기록을 모두 넘어 서게 된다. 최근 4경기에서 5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경기력은 물이 오른 상태. 다만 상대가 첼시라는 점이 선발출전 여부에 변수로 꼽힌다. 런던 라이벌인 양 팀은 2012년 이 대회 4강에서 맞붙어 첼시가 5-1로 이긴 적이 있지만, 올 시즌 리그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토트넘으로서는 1월 5일 맞대결에서 리그 역대 최다 연속 기록을 노리던 첼시의 연승행진을 '13'에서 중단시킨 기억이 있다. 당시 토트넘은 3-4-3 포메이션을 펼친 첼시에 스리백으로 맞붙을 놓았고, 2-0 무실점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직전 리그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변칙적인 스리백 전술을 구사, 2-0 완승했다. 따라서 토트넘이 최근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운 포백 전술로 연승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첼시전에서만큼은 스리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이 3백을 구사하면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4-2-3-1로 나서는 포백에서는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에 더해 손흥민에게 돌아갈 공격수 자리가 하나 남지만, 3-4-2-1포메이션에서는 손흥민이 선발로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나 컨디션이 좋은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손흥민이 올 시즌 출전시간에 비해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후반 조커로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U-20 대표팀 옥석가리기 막바지

24·26일 전주서 평가전 후 최종명단 확정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의 '옥석가리기'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24일과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각각 열리는 평가전을 통해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나갈 21명의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한다. 신태용 감독은 25명의 대표팀 소집명단 중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니우스)를 제외한 24명의 선수를 데리고 지난 10일부터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담금질을 해왔다. 신 감독은 명지대, 수원FC와 연습경기를 통해 24명의 소집 선수를 고루 투입하며 기량을 점검했다. 오는 24일 전주대, 26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의 전북 현대가 마지막 시험 무대다. 신 감독은 두 경기까지 보고 나서 현재 25명의 소집 명단에서 U-20 월드컵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21명을 추린다. 이달 초 U-20 월드컵 테스트 이벤트로 진행된 4개국 초청대회에서 나란히 2골 1도움을 기록한 이승우와 백승호(바르셀로나)는 일찌감치 U-20 출전을 예약했다. 또 최전방 공격수 조영욱과 주전 골키퍼 송범근(이상 고려대), 주장 한찬희(전남 드래곤즈)도 최종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선수들은 향후 두 차례 평가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개국 초청대회 경기 중 목뼈를 다쳐 재활을 하였던 수비수 정태욱(아주대)은 많이 회복됐지만 실전 경기를 뛰지 않아 신 감독이 최종 명단을 앞두고 막판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2차례 평가전은 마지막 옥석가리기는 점 말고도 U-20 월드컵을 치를 그라운드를 직접 밟아본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신태용호는 U-20 월드컵 본선 개막일인 다음 달 20일 기니와, 같은 달 23일 아르헨티나와 차례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조별리그 1, 2차전을 벌인다. 대표팀은 22일 오후 전주로 이동해 6일간 훈련한다. 대표팀은 28일 소집해제 후 29일 또는 30일 최종 명단 21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메시의 골욕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상대팀의 미랄렘 파니치와 충돌한 뒤 그라운드에 얼굴을 부딪고 있다. 메시는 왼쪽 뺨에 출혈이 있었으나,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유벤투스,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바르샤와 0-0

기적은 없었다. 유벤투스(이탈리아)가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유벤투스는 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8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1차전에서 3-0 대승을 거뒀던 유벤투스는 1, 2차전 합계 3-0으로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유벤투스의 '방패'가 리오넬 메시를 앞

세로 바르셀로나의 '창'을 견고하게 막았다. 유벤투스는 전반전 점유율 39%에 그쳤지만 바르셀로나의 유효슈팅을 1개로 틀어막았다. 유벤투스는 다소 거칠게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막기도 했다. 전반 43분 메시는 유벤투스 미랄렘 파니치와 충돌한 뒤 그라운드에 얼굴을 박았다. 왼쪽 뺨에

피가 났지만,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유벤투스는 후반 30분엔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 대신 수비수 안드레아 바르찰리를 투입해 수비 라인을 더욱 견고하게 쌓았다. 후반 막판엔 모든 선수가 페널티 지역까지 내려와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